

2023년 08월 2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81편 1을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497(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32장 11~22절(구약p.791)

11.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12.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13.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14.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15.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16.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17.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8.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19.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족 부대 같구나
20.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22.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 ◎ 말씀선포 / 지혜를 말하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이 자신에 비해 나이가 많음으로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참 지혜를 말해 주길 기다렸으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크게 실망합니다. 더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기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시작함에 앞서 먼저 연로함이나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이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함을 말하고,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 오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연소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혜를 들어 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

고 했고,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요, 지혜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알고, 참된 지혜를 깨달은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연 참된 지혜를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1.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계속적으로 설득하려 했으나 결국 포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엘리후는 참 지혜를 가진 자로 이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말을 시작합니다. 17~18절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는 욥과 그의 친구들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을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으로 욥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가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 또한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받은바 은혜를 증거 하며 참된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며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 2. 지혜의 말씀을 전하데 더 이상 지체함 없이 전해야 합니다.

-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지체함 없이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9~22절입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마치 터지게 된 가죽 부대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거룩한 압박감을 경험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향한 답답함과 연민이 그의 영혼을 강하게 몰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일찍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사람들에게 분명 해를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참 진리요 참된 지혜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예레미야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적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하며 증거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 많은 자들에게 오직 인생

의 참된 지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내가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산다는 보장을 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만난 많은 사람들을 내일 또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더욱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체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며 또한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서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 라고 하였고, 에스겔 33장 8절에서도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입은 신실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499(통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 ◎ 폐 회 / 주기도문